

한국 한자와 중국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 인식 및 학습 실태 연구

— 대학 학부생 중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황신애* · 김지영**

<目 次>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1)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 인식 분석
 - 2)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 학습 실태 분석
- IV. 결론

I. 서론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로 양국의 문자와 언어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한자문화권 기반의 양국은 한자(漢字)라는 공통된 매개를 사용하여 수천 년 동안 자국의 언어와 문화 및 문헌기록을 통해 문학·예술 등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표어문자(Logogram)¹⁾인 한자가 갖는 특징과 중요성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양국은 오랜 세월 한자문화권에서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그 형태가 사뭇 다르다. 현재 한국에서는 『강희자전』 자형을 기반으로 한 전통 자형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기존 한자의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졸업(교신저자)

1) 표어문자(Logogram)는 음절 하나가 형태소 하나에 대응하는 문자 체계를 의미한다.

복잡한 필획을 간략화한 간화자²⁾를 사용하고 있다. 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상이성(相異性)으로 인해 간화자를 배우려는 한국인 학습자는 종종 학습상의 혼동을 겪게 된다. 간화자의 필획이 줄었다고는 하나 한자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함과 난해함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한자를 익혀야 한다는 부담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한자(이하 한자로 사용)와 중국 간화자(이하 간화자로 사용)는 정말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에 속하는 것일까? 또한 한자를 배운 학습자가 간화자를 학습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한자 자형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간화자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영향을 준다면 긍정적인 전이일까, 부정적인 전이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출발하여 한자와 간화자간의 학습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와 간화자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어 학습의 각도에서 한자어와 중국어의 기본어휘나 상용어휘의 비교를 통해 단어의 형태나 의미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휘 간섭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휘 구성 요소인 형태소를 담당하는 한자와 간화자 자체에 대한 상관관계 및 이에 대한 인식 조사나 학습 실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자와 간화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좀 더 본질적으로 두 문자 체계간의 학습 상관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자와 간화자 학습의 상관성 유무와 상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는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나는 현재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 방식을 통해 한자와 간화자간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를

2) 간화자(簡化字)란 중국에서 1955년 1월 한자간화방안초안을 마련하여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1956년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정식 공포한 후, 1964년 중국 문자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화자총표(簡化字總表)」에 수록된 총 2238자의 표준자형을 말한다. 흔히 간화자를 간체자(簡體字)와 혼용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공식적인 규범문자 명칭은 간화자이고, 간체자란 1935년 中國에서 발표된 「第一批簡體字表」에 포함된 324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민간에서 사용하던 특정한 약자와 이체자를 포함한 비표준 자형까지 포괄하여 전통자형에 비해 간략한 모든 자형을 말한다.

찾아내는 구체적 설문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준별 간화자 선택 정당률을 살펴 보고 아울러 앞에서 실시한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의 결과가 두 번째 설문 응답과도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한자 습득과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간화자 학습 실태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자와 간화자 학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字’를 비교 기준 단위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자와 간화자 또는 한자어와 중국어의 비교 단위로 주로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이는 단순히 인도유럽어계의 서구 언어 문법에 맞춰 비교 단위를 삼은 것으로 한자의 속성과 중국어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단위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趙元任은 중국어에 있어서 ‘字’가 중국인 관념 속의 中心主題라 하였고, 徐通鏞은 ‘字’를 중국어 기본 구조 단위로 보고, ‘字’가 어음, 어법, 어의 및 어휘의 합류점이라고 주장하였다. 汪平은 중국어 어법 연구는 마땅히 ‘字’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³⁾ 이에 본고에서는 ‘字’를 기본 비교 단위로 하고, 1글자, 1음절, 1개념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한자와 간화자의 상관성에 관한 문자 연구이기도 하지만, ‘字’의 조합 원리로 생성된 단어 역시 ‘字’를 골간으로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자와 간화자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어휘의 형태나 의미 비교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연구된 것으로, 대조언어학 연구는 어휘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형태 및 의미 비교 연구에는 적합하나 두 언어 문자 간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학습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한자를 통한 간화자 학습의 효과적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徐通鏞(1996: 125) 참고.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경기도 지역 소재 4년제 S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89명의 중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 28명, 여자 61명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19명, 2학년 30명, 3학년 19명, 4학년 21명의 분포를 보인다. 중국어 학습 정도를 보면, 학습기간 2년 미만의 초급 학습자가 17명, 2년 이상~3년 미만의 중급 학습자가 49명, 3년 이상의 고급 학습자가 23명을 차지한다.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습득 한자 150자 미만의 초급 학습자가 31명, 150자~1500자 미만을 습득한 중급 학습자가 36명, 1500자 이상을 습득한 고급 학습자가 22명으로 비교적 고른 균형을 보이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1>과 같다.

<표1> 설문응답자들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총계(명)
성별	남	28	31.5	89
	여	61	68.5	
학년	1학년	19	21.3	89
	2학년	30	33.7	
	3학년	19	21.3	
	4학년	21	23.6	
중국어 학습 정도	초급 HSK 성적 무, 학습기간 2년 미만	17	19.1	89
	중급 HSK4급 또는 학습기간 2년 이상~3년 미만	49	55.1	
	고급 HSK5-6급 또는 학습기간 3년 이상	23	25.8	
한국 한자의 습득 정도	초급 한자능력시험 7-8급 또는 습득 한자 150자 미만	31	34.8%	89

	중급 한자능력시험 6-3급 또는 습득 한자 150-1500자 미만	36	40.5%
	고급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습득 한자 1500자 이상	22	24.7%

2) 연구 도구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인식 정도와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 응답 방식과 통계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한자와 간화자의 상관성에 관한 인식 정도를 묻는 11개 선택 문항⁴⁾과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 선택 36개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한자 학습이 간화자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술 문항을 넣어 학습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설문 조사는 2019년 6월 28~6월 30일까지 3일간 온라인 방식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 IBM SPSS 25버전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 문항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기술 문항 분석은 공통되는 내용을 유목화 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후 설문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아이피 주소의 응답은 배제하였다.

4) 한자와 간화자의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를 묻는 설문은 총 11개 문항으로, 이 중 2개 문항은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 선택 후 학습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재배치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과 통계 분석을 근거로 한자와 간화자 학습의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 및 학습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설문 조사에는 총 89명의 설문 응답자가 참여하였다. 먼저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 인식 분석

한자와 간화자 학습의 상관성 유무와 상관 정도에 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총 11개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이중 9개 문항은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 선택 설문에 앞서 학습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크게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相異)에 관한 인식과 한자 학습을 통한 간화자 학습의 도움 여부 및 한자와 간화자간 학습 전이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에 관한 인식 분석

〈표2〉를 보면, 한자와 간화자가 상이한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6%, 조금 다르다 50.6%, 보통이다 24.7%, 별로 다르지 않다 18%, 전혀 다르지 않다 1.1%로 나타나, 56.2% 이상이 한자와 간화자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相異)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10~20%가 다르다 14.6%, 50~60%가 다르다 32.6%, 70~80%가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를 차지하여, 85.4%가 한자와 간화자가 50% 이상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한자와 간화자가 조금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이나, ㉠의 실제 다른 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85.4%가 한자와 간화자가 50% 이상 다르다고 응답한 것이다. 만일 학습자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였다면 ㉠의 설문에서 10%~20% 또는 30%~40%의 선택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자와 간화자가 다르다는 인식이 기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답하였지만 실제 다른 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85.4%가 50%이상 다르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한자와 비교하였을 때 간화된 한자의 비율은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표

㉠한자와 중국어 간화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백분율(%)	㉡다르다면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백분율(%)
전혀 다르지 않다	1	1.1	10%~20%	13	14.6
별로 다르지 않다	16	18.0	30%~40%	-	-
보통이다	22	24.7	50%~60%	29	32.6
조금 다르다	45	50.6	70%~80%	47	52.8
전혀 다르다	5	5.6	100%	-	-
총계	89	100.0	총계	89	100.0

(2) 한자 학습을 통한 간화자 학습의 도움 여부에 대한 인식 분석

〈표3〉에서, 한자 학습이 간화자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15.7%, 도움이 된다 53.9%, 보통이다 20.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9.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1%의 응답률을 보여 69.7% 이상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한자 학습이 간화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10.1%, 도움이 된다 49.4%, 보통이다 19.1%,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1%의 응답률을 보여 59.5%가 간화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자 학습이 간화자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 11.2%, 도움이 된다 42.7%, 보통이다 22.5%,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1%의 응답률을 보여 53.9%가 한자 학습이 간화자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 학습이 간화자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59.5%이고, 간화자 기억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로, 한자 학습이 간화자 기억에 대한 도움보다 간화자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3) 한자 학습을 통한 간화자 학습의 도움 여부에 관한 인식 분석표

㉔한자 학습이 간화자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명)		㉔예라고 답한 경우, 한자 학습이 간화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빈도 (명)		㉔예라고 답한 경우, 한자 학습이 간화자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빈도 (명)	
	백분 율 (%)	백분 율 (%)		백분 율 (%)	백분 율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	1.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	1.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	1.1
별로 도움이 안 된다	8	9.0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	1.1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	1.1
보통이다	18	20.2	보통이다	17	19.1	보통이다	20	22.5
도움이 된다	48	53.9	도움이 된다	44	49.4	도움이 된다	38	42.7
매우 도움이 된다	14	15.7	매우 도움이 된다	9	10.1	매우 도움이 된다	10	11.2
총계	89	100.0	총계	72	80.9	총계	70	78.7

(3)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전이성에 대한 인식 분석 I

〈표4〉에서 한자 독음이 간화자 발음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 41.6%, 도움이 된다 30.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6.9%, 매우 도움이 된다 9.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2%의 순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39.3%가 한자 독음이 간화자 발음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6%,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를 차지한다.

간화자를 읽을 때 한자 독음으로 읽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있다 37.1%, 보통이다 22.5%, 별로 그런 적이 없다 21.3%,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3.5%, 전혀 그런 적이 없다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50.6%가 간화자를 읽을 때 한자 독음으로 읽은 적이 있거나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해 한자 독음이 간화자 발음 학습에 일정 부분 부정적 전이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전이성에 대한 인식 분석표 I

㉞한자 독음이 간화자 발음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명)	백분율 (%)	㉞중국어 간화자를 읽을 때 한자 독음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까?	빈도 (명)	백분율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2.2	전혀 그런 적이 없다	5	5.6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5	16.9	별로 그런 적이 없다	19	21.3
보통이다	37	41.6	보통이다	20	22.5
도움이 된다	27	30.3	그런 적이 있다	33	37.1
매우 도움이 된다	8	9.0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2	13.5
총계	89	100.0	총계	89	100.0

(4)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전이성에 대한 인식 분석 II

〈표5〉를 보면, 한자 독음이 중국어 간화자 듣기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 39.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8.1%, 도움이 된다 21.3%,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7%, 매우 도움이 된다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자 독음이 간화자 듣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8%인 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를 차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습득한 한자로 인해 간화자를 틀리게 쓴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별로 그런 적이 없다 43.8%, 그런 적이 있다 24.7%, 보통이다 18%,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0.1%, 자주 그런 적이 있다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자로 인해 간화자

를 틀리게 쓴 적이 있거나 자주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를 차지한 반면 틀리게 쓴 적이 별로 없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한자로 인해 간화자 쓰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전이성에 대한 인식 분석II

㉞)한자 독음이 중국어 간화자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백분율(%)	㉞)이미 습득한 한자로 인해 중국어 간화자를 틀리게 쓴 적이 있습니까?	빈도(명)	백분율(%)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	6.7	전혀 그런 적이 없다.	9	10.1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5	28.1	별로 그런 적이 없다	39	43.8
보통이다	35	39.3	보통이다	16	18.0
도움이 된다	19	21.3	그런 적이 있다	22	24.7
매우 도움이 된다	4	4.5	자주 그런 적이 있다	3	3.4
총계	89	100.0	총계	89	100.0

(5)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에 대한 인식 분석

상기 본문에서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학습 전이성에 대한 인식 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래 본문에서는 교차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자 수준별 학습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을 통해, 한자 습득이 고급 학습자인 경우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경우 한자와 간화자가 조금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5%와 1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에 대

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급 10.1%, 중급 9.0%, 초급 5.6% 순으로 나타난 반면, 조금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급 22.5%, 중급 19.2%, 고급 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상당수가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에 대해 보통이거나 조금 다르다고 인식하는 반면 초급자일수록 다르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고급으로 올수록 상이성이 보통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을 통해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6>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에 대한 인식 분석표

한자와 간화자 상이성에 관한 인식	초급		중급		고급		총계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전혀 다르지 않다(같다)	1	1.1	0	0.0	0	0.0	1	1.1
별로 다르지 않다	3	3.4	9	10.1	4	4.5	16	18.0
보통이다	5	5.6	8	9.0	9	10.1	22	24.7
조금 다르다	20	22.5	17	19.2	8	9.0	45	50.6
전혀 다르다	2	2.2	2	2.2	1	1.1	5	5.6
총계	31	34.8	36	40.5	22	24.7	89	100.0

<표7>에서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相異) 정도를 묻는 질문에 70~80%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는데, 이를 한자 습득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초급 19.1%, 중급 18.0%, 고급 15.7% 순으로, 초급 학습자일수록 한자와 간화자간의 상이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로, 이들 역시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경우 고급 학습자에 비해 한자와 간화자가 상이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相異) 정도에 대한 인식 분석표

한자 습득 정도 한자와 간화자 상이 정도	초급		중급		고급		총계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10%~20% 다르다	3	3.4	7	7.9	3	3.4	13	14.6
30%~40% 다르다	0	0.0	0	0.0	0	0.0	0	0.0
50%~60% 다르다	11	12.4	13	14.6	5	5.6	29	32.6
70%~80% 다르다	17	19.1	16	18.0	14	15.7	47	52.8
100% 다르다	0	0.0	0	0.0	0	0.0	0	0.0
총계	31	34.8	36	40.5	22	24.7	89	100

2)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 학습 실태 분석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중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 선택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학습자들에게 정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먼저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를 선택하는 문항은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은 간화자 원리에 따라 다시 4개 문항씩 나누고 각 문항은 삼지 선다형으로 작성하여 설문하였다. 학생들의 간화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에는 간화 원리는 넣지 않고 한자와 간화자만 제시하고 한자 옆에 한국어 독음을 주어 간화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 문항의 표본 한자는 간화 원리에 따른 한자들 가운데 비확률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는 9가지 간화 원리에 따른 정답률,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 및 한자 습득 정도와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9가지 간화 원리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9가지 간화 원리별 정답률

본고는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간화 원리를 9개로 분류하고,⁵⁾ 이에 따른 학습자들의 간화자 선택 정답률을 살펴보았다. 간화자는 기존 한자의 복잡한 필획을 줄여 간략하게 만든 표준자형으로 制字원리를 알면 한자 번체자와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간화 원리로 만들어진 간화자 선택 정답 비율을 통해 학습자들의 간화자 학습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간화자 학습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8〉에서 간화 원리에 따른 학습자들의 정답 실태를 살펴보면, ⑦전체 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한 정답률이 8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 79.3%, ⑥草書體를 楷書화한 것 78.1%, ⑧새로운 形聲字로 만든 것 77.3%, ⑤간단한 古字나 異體字 사용 77.2%,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70.8%, ①자형의 윤곽만 남긴 것 68.5%,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 65.2%,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 60.7% 순으로 나타났다. 한자의 난이도에 따라 정답률의 편차가 다소 발생기는 하나 간화 원리에 따른 정답률은 대체로 60~80%내외의 비율로, 전체 평균 정답률은 73.1%에 달한다. 학습자들의 정답률을 통해, 한자와 간화자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간화 원리에 따라 다소 정답률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9가지 간화 원리에 따른 정답률은 아래 〈표8〉와 같다.

5) 간화 원리는 학자에 따라 8~10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본고에서는 『漢字學概論(2001)』에 소개된 9가지 분류와 오문의(2004) 「간체자 교육 방법론 연구」에 소개된 7가지 분류를 근거로 본 실문에 맞게 9개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한자와 간화자의 상관성을 다루는 논문으로 간화 원리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8〉 9가지 간화 원리별 정답률 표

9가지 간화 원리		간화원리에 따른 정답률			빈도 (명)	정답률 (%)	평균 정답률 (%)
		설문 항목	한자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 선택			
①자형의 윤곽만 남긴 것	龜	1)甲	2)龟	3)申	67	75.3	68.5
	魚	1)兔	2)鱼	3)田	80	89.9	
	齒	1)赤	2)止	3)齿	74	83.1	
	廠	1)厂	2)广	3)庆	23	25.8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習	1)习	2)羽	3)白	72	81.0	70.8
	開	1)开	2)井	3)门	80	89.9	
	鄉	1)乡	2)即	3)邓	62	69.7	
	滅	1)威	2)灭	3)灰	38	42.7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	裏	1)里	2)衣	3)离	48	54.0	65.2
	幾	1)几	2)及	3)极	53	59.6	
	醜	1)纽	2)丑	3)酉	55	61.8	
	後	1)后	2)侯	3)石	76	85.4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	遷	1)芑	2)道	3)迁	70	78.7	79.3
	燈	1)灯	2)凳	3)火	76	85.4	
	鐘	1)铜	2)撞	3)钟	66	74.2	
	戰	1)伐	2)粘	3)战	70	78.7	
⑤간단한 古字나 異體字 사용	氣	1)气	2)岳	3)米	82	92.1	77.2
	衆	1)众	2)家	3)血	69	77.5	
	從	1)从	2)从	3)侧	59	66.3	
	無	1)无	2)巫	3)五	65	73.0	
⑥草書體를 楷書化 한 것	東	1)东	2)动	3)束	66	74.2	78.1
	書	1)晋	2)日	3)书	77	86.5	
	爲	1)为	2)未	3)伟	71	79.8	
	農	1)弄	2)衣	3)农	64	71.9	
⑦전체 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	鷄	1)饿	2)机	3)鸡	82	92.1	80.9
	漢	1)汉	2)汗	3)勤	73	82.0	
	義	1)义	2)羊	3)姜	60	67.4	
	對	1)封	2)业	3)对	73	82.0	
⑧새로운 形聲字로 만든 것	驚	1)鲸	2)惊	3)马	72	80.9	77.3
	礎	1)础	2)黜	3)石	68	76.4	
	態	1)熊	2)态	3)能	64	71.9	
	護	1)该	2)护	3)打	71	79.8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	塵	1)鹿	2)压	3)尘	27	30.3	60.7
	淚	1)汽	2)泥	3)泪	64	71.9	
	寶	1)宝	2)宣	3)贝	55	61.8	
	體	1)豊	2)体	3)骨	70	78.6	

(2)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습득 한자 150자 미만의 초급 학습자는 총 31명이고, 습득 한자 150자 이상 1500자 미만의 중급 학습자는 총 36명, 1500자 이상을 습득한 고급 학습자는 총 22명이다. <표9>에서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의 한자와 간화자 선택 정답률을 보면 초급 65.2%, 중급 70.3%, 고급 88.2%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의 경우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한 정답률이 76.8%로 가장 높은 반면, 중급 학습자는 ⑦전체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대체한 정답률이 81.4%로 가장 높고, 고급 학습자는 ⑥草書體를 楷書化 한 것과 ⑦전체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대체한 것의 정답률이 공동 94.5%로 가장 높다. 또한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경우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의 정답률이 각각 54.2%와 53.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한 것의 정답률이 78.6%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의 간화자 선택 정답률은 간화 원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대체로 정답률이 증가한다. 다만,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와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에 대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초급 학습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③을 제외한 ②와 ⑨는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간 정답률의 편차가 1% 내외로 거의 차이가 없는 편으로, 이는 간화 원리에 따른 간화자 선택에 있어서 고급 학습자는 한자 자형이나 독음의 난이도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한자의 난이도에 따라 간화자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자 습득을 많이 한 고급 학습자일수록 한자를 통해 간화자를 유추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 표

간화원리 및 한자 수준별 정답률	초급(31명)		중급(36명)		고급(22명)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자형의 윤곽만 남긴 것	18.5	59.7	24	66.7	18.5	84.1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19	61.3	21.8	60.6	19.8	90.0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	20	64.5	20.8	57.8	17.3	78.6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	23.8	76.8	27.8	77.2	19	86.4
⑤간단한 古字나 異體字 사용	20.3	65.5	28	77.8	20.5	93.2
⑥草書體를 楷書化 한 것	20.3	65.5	28.5	79.2	20.8	94.5
⑦전체 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	22	71.0	29.3	81.4	20.8	94.5
⑧새로운 形聲字로 만든 것	21.3	68.7	28	77.8	19.5	88.6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	16.8	54.2	19.3	53.6	18	81.8
평균값(case, %)	20.2	65.2	25.3	70.3	19.4	88.2

(3)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

〈표10〉에서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을 보면, 초급 48.2%, 중급 74.1%, 고급 87.0%로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과 마찬가지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의 경우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다 정답률이 1.6%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급 학습자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고급학습자와 비슷하게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의 경우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가 58.8%로 가장 높고,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이 35.3%로 가장 낮다. 중급 학

습자의 경우 ⑦전체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가 86.3%로 가장 높고,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이 58.2%로 가장 낮으며, 고급 학습자의 경우 ⑦전체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가 97.8%로 가장 높고,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이 67.4%로 가장 낮다. 이와 같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의 정답률이 가장 낮고,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는 ⑦전체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문항에 대한 초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평균 48.2%로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 중급 학습자나 고급 학습자에 비해 한자와 간화자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둘 간의 공통점을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문자로 인식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혼동이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간화 원리별 정답률 표

간화원리 및 중국어 수준별 정답률	초급(17명)		중급(49명)		고급(23명)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자형의 윤곽만 남긴 것	9.5	55.9	33	67.3	18.5	80.4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8.8	51.8	33.8	69.0	15.5	67.4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	8.5	50.0	30.5	62.2	19	82.6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	10	58.8	40	81.6	20.5	89.1
⑤간단한 古字나 異體字 사용	8.3	48.8	39.3	80.2	21.3	92.6
⑥草書體를 楷書化 한 것	6.8	40.0	40.5	82.6	22.3	97.0
⑦전체 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	7.3	42.9	42.3	86.3	22.5	97.8
⑧새로운 形聲字로 만든 것	8.8	51.8	38.8	79.2	21.3	92.6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	6	35.3	28.5	58.2	19.5	84.8
평균값(case, %)	8.2	48.2	36.3	74.1	20	87.0

(4) 한자 습득 정도와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

〈표11〉에서 한자 습득 정도와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보면, 먼저 한자 초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65.2%, 중국어 초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48.2%이고, 한자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70.3%, 중국어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74.1%, 한자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88.2%, 중국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87.0%로 나타난다.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간화자 선택 정답률의 편차가 4% 내외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자 초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중국어 초급 학습자보다 17%가량 높다. 뿐만 아니라 한자 초급 학습자는 9가지 간화 원리별 간화자 선택에 있어서도 중국어 초급 학습자들보다 모든 원리에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화자 초기 학습에 있어서 한자를 조금이라도 습득하고 있는 학생이 중국어만 배운 학생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와는 다른 학습 양상을 보인다. 〈표11〉에서 중급 학습자의 경우 평균 정답률뿐만 아니라 모든 간화 원리에서 한자 중급 학습자보다 중국어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급 학습자의 경우 혼재 양상을 보이는데, ①자형의 운곽만 남긴 것,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⑤간단한 古字나 異體字 사용에 있어서는 한자 고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높은 반면, 그 외 6가지 다른 간화 원리에 있어서는 중국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한자의 습득 유무보다는 중국어 습득에 따른 간화자 습득 여부가 정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자 습득과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은 각각 88.2%와 87%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이 중, 〈표11〉을 통해 자형과 관련된 간화자 선택은 한자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은 반면, 발음과 연관된 간화자 선택은 중국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 고급 학습자는 습득한 한자의 자형에 근거해 간화자를 고르는 반면, 중국어 고급 학습자는 발음과 연관해 同音 또는 비슷한 발음의 간화자를 고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근거로 한자의 자형과 발음은 간화자의 자형, 발음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한자 습득과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학습자의 간화자 학습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한자 습득 정도와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한자 습득 정도와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 비교표

한자/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정답률 간화 원리	초급 학습자 정답률(%)		중급 학습자 정답률(%)		고급 학습자 정답률(%)	
	한자	중국어	한자	중국어	한자	중국어
	①자형의 윤곽만 남긴 것	59.7	55.9	66.7	67.3	84.1
②자형의 일부만 남긴 것	61.3	51.8	60.6	69.0	90.0	67.4
③전체자형을 同音字로 교체	64.5	50.0	57.8	62.2	78.6	82.6
④자형의 聲符를 동음자로 교체	76.8	58.8	77.2	81.6	86.4	89.1
⑤간단한 古字나 異體字 사용	65.5	48.8	77.8	80.2	93.2	92.6
⑥草書體를 楷書化 한 것	65.5	40.0	79.2	82.6	94.5	97.0
⑦전체 자형 혹은 복잡한 편방을 간단한 부호로 교체	71.0	42.9	81.4	86.3	94.5	97.8
⑧새로운 形聲字로 만든 것	68.7	51.8	77.8	79.2	88.6	92.6
⑨새로운 會意字로 만든 것	54.2	35.3	53.6	58.2	81.8	84.8
평균값(%)	65.2	48.2	70.3	74.1	88.2	87.0

IV. 결론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한자라는 공통 문자를 사용하여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현재 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형태가 다른데 한국은 『강희자전』을 기반으로 한 전통 자형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한자의 복잡한 필획을 줄여 간략하게 만든 간화자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의 한자와 중국의 간화자간 학습 상관성 유무 및 상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아울러 학습자들의 한자와 간화자 학습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은 경기도 소재 4년제 S대학 중국어 전공자 8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인식 조사에 필요한 11개의 설문 문항과 학습자들의 학습 실태 파악을 위해 한자와 일치하는 간화자 선택 36개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相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이상이 조금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상이(相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다르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한자와 간화자가 50~60%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 70~80%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85.4%가 한자와 간화자가 50%이상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자 학습을 통한 간화자 학습의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9.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중 한자 학습이 간화자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59.5%이고, 간화자 기억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로, 한자 학습이 간화자 기억에 대한 도움보다는 간화자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자 독음이 간화자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39.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다 41.6%,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이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화자를 읽을 때 한자 독음으로 읽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0.6%가 그렇거나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해 한자 독음이 간화자 발음 학습에 어느 정도 부정적 전이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자 독음이 중국어 간화자 듣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8%인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를 차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습득한 한자로 인해 간화자를 틀리게 쓴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틀리게 쓴 적이 있거나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를 차지한 반면, 틀리게 쓴 적이 없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한자로 인해 간화자 쓰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을 묻는 질문에 한자 습득 정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습자 상당수가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성(相異性)이 보통이거나 조금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급 10.1%, 중급 9.0%, 초급 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조금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급 22.5%, 중급 19.2%, 고급 9.0% 순으로 나타나, 초급 학습자일수록 다르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고급으로 올수록 상이성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70~80% 다르다고 응답한 학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급 19.1%, 중급 18.0%, 고급 15.7%로 초급 학습자일수록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에 관한 학습자의 학습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에 학습 실태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9가지 간화 원리에 따른 간화자를 비확률 표집하고, 이에 따른 학습자들의 간화자 선택 정당률과 한자와 중국어 학습 수준별 학습자들의 간화자 선택 정당률을 살펴보았다. 간화 원리에 따른 정당률을 살펴보면, 한자의 난이도에 따라 다소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대체로 60~80%내외의 정당률을 보여 전체 평균 정당률이 73.1%에 달해, 한자와 간화자의 학습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자 습득 정도와 중국어 습득 정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정당률을 살펴보면, 각각 초급 65.2%와 48.2%, 중급 70.3%와 74.1%, 고급 88.2%와 87.0%로 한자와 중국어 모두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의 정당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수준별 정당률은 한자와 중국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정당률 편차가 4% 내외인 반면, 초급 학습자는 17%의 편차가 발생해 한자와 간화자 선택에 있어서 초급 학습자가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급 학습자의 경우 9가지 간화 모든 원리에서 한자 초급 학습자가 중국어 초급 학습자보다 정당률이 높게 나타나, 초기 간화자 학습 시 한자를 배운 학생이 배우지 않은 학생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9가지 간화 원

리 모두 중국어 중급 학습자가 한자 중급 학습자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습득 정도가 간화자 정답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자형을 기반으로 한 간화자는 한자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발음과 연관되거나 부호를 사용한 간화자는 중국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자 고급 학습자는 습득한 한자 자형의 영향으로 자형과 연관된 간화자를 선택하는 긍정적 학습 전이가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어 고급 학습자는 이미 습득한 중국어 발음의 영향으로 한자와 同音 또는 비슷한 발음의 간화자를 선택하는 긍정적 학습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에서 한자와 일치하는 36개 문항의 간화자 선택 후, 한자를 통해 간화자를 유추할 수 있었는가와 한자와 간화자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한자를 통해 간화자를 유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2.4%, 그렇다 41.6%, 보통이다 37.1%, 그렇지 않다 6.7%,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응답률을 보여, 54%가 유추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자와 간화자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5.7%, 그렇다 53.9%, 보통이다 25.8%, 그렇지 않다 2.4%,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응답률을 보여 69.6%가 상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설문 초기 한자와 간화자의 상이(相異)를 묻는 질문에 56.2%가 다르다고 응답하고, 이중 85.4%가 50%이상 다르다고 응답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자 학습이 간화자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어 달라는 문항에 '처음에는 한자와 간화자가 다르다고 생각했으나, 문제 풀이를 통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한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본 설문 조사의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자와 간화자는 현재 다른 자형의 형태로 다른 문자 체계처럼 여겨지나, 연원(淵源)과 뿌리가 같아 자형과 발음에 있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특히 설문 조사를 통해 한자와 중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한자와 간화자 선택 정답률이 높았으며, 한자 고급 학습자는 한자의 자형의 영향을 받아 간화자 학습의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고, 중국어 고급 학습자는

중국어 발음의 영향을 받아 간화자 학습의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문자 체계간의 자형과 발음에 대한 상관성을 잘 파악한다면, 향후 한자와 간화자 학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阿辻哲次 著·金彦鍾·朴在陽 譯, 『漢字的 歷史』, 학민사, 1994.
- 裘錫圭 著·李鴻鎮 譯, 『中國 文字學』, 신아사, 2001.
- 張玉金·夏中華, 『漢字學概論』, 廣西教育出版社, 2001.
- 徐通鏞, 『語言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
- 『한중 한자어 비교사전』, 도서출판 역락.
- 김미숙, 『한자어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지도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민정, 『고등학교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간체자 쓰기 지도방안 및 수업 모형 설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석영, 「간화자 분류의 문제점과 이원적 분류체계의 모색」, 『중국어문학집』(41), 2018.
- 김진옥, 『한국의 한자와 한문교육이 중국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지혜,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용 漢字 선정과 지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정애, 『韓國漢文教育用基礎漢字와 中國現代漢語常用漢字比較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정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 배경지식 활용 연구」,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 박홍수, 「六書의 관점에서 본 簡體字」, 『중국문학연구』(23), 2001.
- 송화연, 「한·중 한자어의 의미, 형태 용법 대조」, 『中國言語研究』 제24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7.
- 오문의, 「간체자 교육 방법론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8집, 2004.
- 원 정, 『한자·한문을 학습한 학생들에 대한 중국어 지도방안 연구 -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국화, 『部首를 활용한 중국어 簡化字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유정, 「한국인의 중국어 문장 부호 사용과 인식 실태조사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99호, 2016.
- 李榮鉉, 『韓國 學生의 簡體字 學習을 위한 研究』,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이지윤, 『部件識字法을 활용한 중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한자교수법』, 한국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지희, 『국어 漢字語와 중국어 어휘 대조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중국어 어휘 지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이현성, 『중국어 수업을 위한 漢字 교수법』,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장은영, 「한중 공통한자를 이용한 중국어 어휘교육」, 『중국인문과학』 62, 2016.
- 정미경, 『한·중양국의 기본상용 한자 비교 연구: 韓國의 中學校 教育用 基礎 漢字와 HSK 甲級字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정연실, 『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간체자 지도방안과 수업모형의 설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윤경, 「한자 이해와 중국어 학습의 인지적 관계」, 『중국어문학논집』(36),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and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in Korea
- Focusing on Chinese Learners of University Students

Hwang, Shin-Ae / Kim, Ji-Young

South Korea and China are countries belonging to the East Asian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the two countries' text and language are closely related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based on Chinese character culture have developed literature and art through their own language, culture and literature records for thousands of years, using a common medium called Chinese Characters. The two

countries have used the same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character culture for many years, but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both countries are different in their forms. Currently, traditional shaped Chinese Characters is used in Korea based on the shape of Kang Hee Jajeon, while in China, The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is used.

This study surveyed learners' perceptions and realities about the learning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and simplified characters.

In order to examine the existence and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 and simplified character learning, we conducted the study in two aspects. One is to look at learners' perceptions of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and simplified learning correlations through a survey response method for students currently learning Chinese at universities, and the other is to use specific survey responses to identify simplified characters that match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to examine the correct rate of selection by learning level and to see if the results of the respondents' recognition survey actually match the learner's selection results.

Through this research, we checked the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and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and also looked at the status of learners' study about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based on the degree of Chinese characters acquisition and Chinese language acquisition.

Key words: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correlation, Chinese learners, Chinese character culture, survey

이 논문은 2019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19년 8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8월 2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